

(2) 토기류

청동기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토기가 있다. 즉 구멍무늬토기·팽이형토기·송국리형토기·붉은간토기·가지문토기·덧띠토기 및 검은간토기 등이 있는데, 검은간토기나 덧띠토기는 다른 토기에 비하여 늦게 발생되었다고 본다.

구멍무늬토기(공렬토기)란 아가리 아래에 구멍을 뚫어 돌린 화분형의 토기로 아가리가 약간 밖으로 꺾이거나 때로는 아가리 윗면에 골이 패인 경우도 있다. 이 토기는 함경도지역에서 발생되었는데, 중국 동북부지역 신석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 토기의 분포는 비교적 넓게 나타나는데 함경도지역을 비롯하여 한강 유역, 낙동강 유역, 섬진강 유역 및 제주도 등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주암담 수몰지구 발굴 중 섬진강의 지류인 보성강 유역의 순천 송광면 대곡리·우산리 곡천, 보성 죽산리 유적에서 구멍무늬토기가 다수 발견된 바 있다.

팽이형토기(각형토기)는 모양이 팽이 같고 바닥이 작다. 아가리는 화분처럼 겹으로 되어 있으며, 그 겹아가리 부분 바깥에는 평행사선열이 서로 방향을 바꾸면서 띄엄띄엄 배치된다. 바탕흙은 모래·활석·석면을 섞었다. 이 토기는 충청강 이남의 평남·황해도 지역에 퍼져 있으나 남쪽 한계선은 한강하류 유역이다. 이 토기의 기원은 기형이나 문양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라고 보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아직 팽이형토기가 발견된 예는 없다.

송국리형토기(외반구연토기)는 부여 송국리 집터에서 발굴된 표지적인 토기로서 장란형의 동체부에 외반구연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토기는 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낙동강의 지류인 황강 유역에서도 발견되었다. 전남지역에서는 영암 장천리 유적에서 전형적인 송국리형토기가 발견된 적이 있고 송광면 대곡리의 집터에서도 발견되었다. 붉은간토기는 고운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이 마르기 전에 철분이 많이 섞인 진흙을 한 겹 바른 다음 잘 문질러서 정면한 것이다. 토기의 모양은 둥근 바닥의 긴 목 단지인데, 목이 안으로 가볍게 오므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토기를 홍도 혹은 단도마연토기라고도 부르는데, 함경도지역부터 한강 및 낙동강 유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붉은간토기는 송광면 오봉리 고인돌에서 완형이 발견된 바 있으며 파편은 여러 유적에서 수습되었다.

가지문토기(채문토기)는 일종의 채색토기로 역시 고운 흙으로 만들어졌고, 모양은 송국리집터 출토의 붉은간토기와 유사하다. 주로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에서 발견되고 있고, 화순 장학리 고인돌에서 부장품으로 발견된 바 있다.

덧띠토기(점토대토기)는 구연부를 밖으로 말아서 띠를 돌린 것 같은 모양인데 청동기와 관련이 깊은 토기이다. 이 토기는 한강 유역 이남에서 발견되고 있다. 덧띠토기는 아직 완형이 발견된 바가 없으나 구연부의 파편은 장흥 건산리, 해남 군곡리 조개더미의 하층에서 각각 발견되었다. 이 토기는 철기시대에 들어서면 단면 원형에서 삼각형으로 변화되는데, 이와 같이 변화된 토기는 해남 군곡리 조개더미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검은간토기는 긴 목에 둥근 동체부가 달린 형태로 마연을 한 검정색 토기이다. 이 토기는 주로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어 부장용 토기로 추측되는데 덧띠토기와 함께 청동기와 관련된 토기이다. 검은간토기편은 강진 영복리 고인돌 주위에서 출토된 예가 유일하다.

